



# 군종주보

2023년 10월 8일(제1161호)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제56회 군인 주일 담회문

“주님의 지애기 온 땅에 기뻐하니.” (시편 33,5)

오늘은 제56회 군인 주일입니다. 올해부터는 교구장님들의 동의하에 ‘군인 주일’ 행사를 10월 첫 주에서 둘째 주일로 이동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군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무척 기쁜 마음입니다.

군인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수고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인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극한 호우’는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며 터널 안으로 부지불식간에 밀려든 강물에 생명을 잃은 분들의 슬픈 소식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의 죽음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진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이 수재민을 돕고자 살인적인 더위를 무릅쓰고 수해 현장에

서 봉사하였습니다. 이렇듯 군인은 나라의 천재지변과 여러 비상 상황에 어느 곳이든 제일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뻗치며, 평화의 사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병사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종신부들은 간식을 준비하여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을 위문하며 고통에 동참하였습니다. 재난의 복구를 위해 신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루카 15,4)

한국천주교회의 신자통계에 보면, 2012년 20~24세 남녀 영세자는 전 교구를 합해 30,000여 명이었고, 그중 군종교구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은 27,000여 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00명 중에 87명이 군 생활 중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도에 군종교구에서의 세례자 수는 1,700여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군대 안에서 영세자가 급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의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향한 젊은이들의 냉담함과 과거와 비교해 다양하게 보낼 수 있

<2면에 계속>

제 1 특 시  
회 담 송  
제 2 특 시  
복음 환호송

이사 5,1-7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필리 4,6-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21,33-43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제56회 군인 주일 담회문

는 자기 계발의 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안타까운 현실의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종신부들은 예전의 종교활동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며 ‘찾아나서는 사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사해야 합니다. 성당에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 신자분들이 대다수인 교회의 현재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는 전투가 끝난 뒤의 야전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치빌타 가톨릭카’와의 인터뷰, 2013) 상처를 치유하고 믿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이 감싸주는 것이 사목자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심고 이들로는 물을 주었고, 지리개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1코린 3,6)**

올해 저의 사목지침은 ‘선교의 열매, 세례성사!’입니다. 그간 한국천주교 안에서 청년 영세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군종교구 영세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교회 문을 두드리는 장병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건상 장기간 교리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군종신부, 수녀, 군 선교사들은 열성을 다해 이들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고 믿으며, 군대 안에서 성실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는 신자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당 사목방문을 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쉬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CBCK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주일

미사 참석률은 43%였던 것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에는 11.8%까지 떨어졌습니다. 군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대 안에서 병사들을 위한 ‘영적 돌봄’은 무척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군종신부들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부대와 훈련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우리나라와 한국천주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이사 48,2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다면 군종사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자 형제, 자매인 장병들이 건강히 군 복무를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는 것은 군종신부들의 책무입니다. 아울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물질 지원은 군종사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홍수와 태풍으로 심신이 고달프실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그리고 그분은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애가 병사들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형제들이 있는 부대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2023년 10월 8일 군인 주일에  
진주교 군종교구장 시상범 티토 주교

상화이야기



군인 주일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후방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신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또 자신을 희생하신 많은 군중신부님들과 군인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로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에밀 카폰 신부님뿐 아니라, 많은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포탄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하느님께 의지하며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 ▶ 한국 전쟁 당시 군용 지프지를 제대로 삼이 미시를 집진하던 에밀 카폰(Emil Kapaun) 신부님 (1916년~1951년)  
1950년 10월 7일자 시진  
포로수용소에서 사망

◀ 레오 피터 크레이그(Leo Peter Craig) 신부님(1913년~1951년)이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병자성사를 집진하고 있는 모습 (부상지 오른쪽, 철모에 군중신부 십자가) 이 시진이 찍힌 직후 신부님도 직의 포탄에 사망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7주일: 시제단

◆ 제56회 군인 주일

때: 10월 7일(토) ~ 8일(주일)

◆ 교구장 동정

-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때·곳: 10월 9일(월) ~ 13일(금), CBCK

“신교의 열매, 새래성사!” -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